



보도시점 2025. 12. 15.(월) 0시 배포 2025. 12. 10.(수) 10시

※ 엠바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12월 이달의 재외동포, '오기문' 前재일대한부인회장

- 재일민단 결성,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사회 조직화에 기여
-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설립 등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
- 6.25 전쟁 구호품 모금, 전쟁 고아 돌봄 등 봉사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025년 12월 '이달의 재외동포'로,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,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등을 설립하며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故오기문(1911-2014) 前 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.
-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, 남편과 사별 후 삼바느질로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. 오 회장의 억척스럽고 성실한 생활상이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'본받아야 할 조선의 모범 부인'으로 소개되면서,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, 도일하며 꿈꾸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.
- 오 회장은 재일동포들을 돋는 일에 앞장서고, 재일민단 결성,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재일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.
 -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재일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'여변호사'라 불릴 정도였다.
 - 오 회장은 1945년 출옥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재일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고, 200만엔의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. 이를 모체로 하여 '재일본대한민국민단'이 결성되어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으로 취임했다.

- 또한, 민단 단원 부인들을 규합하여 허정숙 여사와 함께 1947년 8월 재일본대한부인회 도쿄 본부를 창립하고, 2년 뒤인 1949년 부인회 총본부를 결성해 일본 전국 조직으로 확장했다.
- 오 회장은 조국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힘을 쏟았다. 6.25전쟁 시 도쿄 거리에 나가 모금 활동을 벌이고, 의약품, 담요 등 구호품을 마련하여 위문단으로 파견되기도 했다.
- 후방에서 전쟁고아와 노인들을 돋고, 일본에서는 일본 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연합군 병사들을 위한 위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.
- 오 회장은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후 일본 패망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기로 결심했다.
- 그녀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기 위해 자비로 10억 원을 마련하여 한국-일본을 수십 차례 오가며 1987년 그녀가 태어난 고령 쌍림면 매촌리에 (사)대조구국원을 설립하고, 1993년 대창양로원을 개원하였다.
- 그동안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무의탁 노인 145명이 대창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냈고, 현재 7명의 사할린 귀국 동포와 44명의 노인들이 대창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.
- 우리 정부는 재일동포들과 사할린 무의탁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공적을 기려 197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, 199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오기문 회장은 일평생을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바친 분”이라며 “그녀의 숭고한 업적이 후대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12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2025년 12월 '이달의 재외동포' 오기문 상세자료 1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심의관	곽삼주	032-585-3154
	재외동포정책과	담당자	주무관	우지연	032-585-3161

대한민국
지지부리피

